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라
(잠언 16:3)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이종국

충헌성경연구원 개강, 3월 4일(토) 오후 7시

성경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시다

주간성경공부, 교사양성부, 찬양대원양성부 등 총 15주간 계속

충 헌성경연구원은 오는 3월 4일(토) 오후 7시 갈릴리움에서 95년도 제1학기 개강예배를 드림으로 학기를 시작한다. 매년 봄, 가을로 나누어 학기를 개설하고 있는 충헌성경연구원은 성도들이 주간 중에 나와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주간성경공부반과 교회학교 교사양성을 위한 교사양성부, 찬양대원 양성을 위한 찬양대원양성부가 있고, 교회학교 교사의 재교육을 위한 교사연장교육이 있다. 95년도 1학기는 3월 4일 개강예배를 시작으로 6월 17일까지 총 15주 동안 모인다. (교사양성부는 실습 및 연구수업을 추가하여 총 20주)

주간성경공부는 화, 목요일에 총 6개 강좌가 개설되어 있어 이 중에서 선택하여 들을 수 있다. 또한 양육훈련반은 94년 1학기부터 모집하여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기에 금년 봄학기에 새로 시작하는 반은 별도로 편성되고 94년도 신청한 반은 계속 유지된다. 94년반은 목요일 오전과 오후에 실시된다.

교사양성부는 금년 봄학기가 42기로 오랜 전통을 가지고 교회학교 교사를 양성하는데 힘써 왔다. 이는 주일반(오후 3시 ~ 4시 50분)과 화요일반(오후 7시 ~ 8시 50분) 중에 각자 형편에 따라 수강할 수 있다.

찬양대원 양성부는 매주일 오후 6시 20분 ~ 8시 10분에 모인다.

교사연장교육은 매주일 오후 3시 ~ 4시 50분까지 모여 교회학교 교사 중만 3년(4년차, 8년차, 12년차) 사람들이 이 교육의 대상자들이다.

교사양성부와 찬양대원양성부의 교과목과 강사는 다음과 같다.

· 제42기 교사양성부

날짜	시간	1교시 주일반 15:00~15:50 화요일 19:00~19:50		2교시 주일반 16:00~16:50 화요일 20:00~20:50	
		강의제목	강사	강의제목	강사
3/4(토)	오후 7시	개강예배	김광국 목사	오리엔테이션	장우천 목사
3/5	3/7	신학개론	정광욱 목사	신학개론	정광욱 목사
3/12	3/14	구약개론	장경철 목사	구약개론	장경철 목사
3/19	3/21	신약개론	조동원 목사	신약개론	조동원 목사
3/26	3/28	학습지도법	윤삼중 목사	학습지도법	윤삼중 목사
4/2	4/4	여배론	임성환 목사	여배론	임성환 목사
4/9	4/11	상담심리학	김희수 목사	상담심리학	김희수 목사
4/16	4/18	교회론	성봉환 목사	교회론	성봉환 목사
4/23	4/25	심방론	한용관 목사	심방론	한용관 목사
4/30	5/2	교회사 개관	김찬곤 목사	교회사 개관	김찬곤 목사
5/7	5/9	교회음악	현상민 목사	교회음악	현상민 목사
5/14	5/16	전도와 선교	장경철 목사	전도와 선교	김창수 목사
5/21	5/23	학습지도 사례1	이종대 목사	학습지도 사례2	이종대 목사
5/28		공동체 훈련: 교회학교 소개			
6/4		부서 오리엔테이션 및 참관			
6/11~7/2		교생 실습 4주			
7/9		탐방			
7/16		연구수업			

학습·세례·성찬식

3월 3일(금) 학습·세례식
3월 5일(주일)에 성찬식

금년들어 두번째 실시하는 학습·세례식이 오는 3월 3일(금) 오후 7시에 갈릴리움에서 실시된다. 이번 학습·세례식을 위해 3월 2일(목) 오후 7시에 교육관 307호에서 예비교육과 문답이 있고 3월 5일(주일)에는 주일예배시 성찬식을 거

행한다.

교회는 격월(매 홀수 달)로 학습·세례·성찬식을 갖기로 하며 필요한 사람들이 그때 그때 학습과 세례 등에 참여하게 했다.

또한 이번 세례식에 있어서 사용할 물은 지난번 당회장 신성종 목사 일행이 회교권 선교지를 순방하던 중 이번 세례식을 생각하며 가지고 온 요단강 상류의 물이다.

· 제12기 찬양대원양성부

날짜	시간	1교시(6:20 ~ 7:10)		2교시(7:20 ~ 8:10)	
		강의제목	강사	강의제목	강사
3/4		개강예배	신성종 목사	오리엔테이션	장우천 목사
3/5		교회 일꾼의 자격	현상민 목사	영적예배와 찬양	장우천 목사
3/12		합창호흡 및 발성	송숙자 집사	초급시창	송숙자 집사
3/19		합창호흡 및 발성	송숙자 집사	초급시창	송숙자 집사
3/26		음악이론	최광덕 집사	초급시창	최광덕 집사
4/2		음악이론	최광덕 집사	초급시창	최광덕 집사
4/9		찬양대원의 형성	김찬곤 목사	은사와 봉사	성봉환 목사
4/16		중급시창	조신욱 집사	중급시창	조신욱 집사
4/23		중급시창	조신욱 집사	중급시창	조신욱 집사
4/30		고급시창	장기범 교수	고급시창	장기범 교수
5/7		고급시창	장기범 교수	고급시창	장기범 교수
5/14		합창확습	김영준 집사	합창확습	김영준 집사
5/21		합창확습	김영준 집사	합창확습	김영준 집사
5/28		성경에 나타난 찬양	김광국 목사	찬양대원의 자격	현상민 목사

금주의 교회행사

1. 청지기훈련 제4차 주간

3월 1일(수), 2일(목)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원

계속되는 청지기훈련 제4차 주간 금주에는 3월 1일(수), 2일(목)에 교회학교 교사와 찬양대원의 훈련으로 모인다. 강사로 교회학교 교사에 김창수, 이경영 목사 찬양대원은 현상민, 이성재 목사이다. 해당되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집회 시작 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한다.

2. 직분자 24시간 연속기도회

2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4교구가 계속

지난 2월 6일 시작한 직분자 24시간 연속기도회가 금주에는 2월 27일(월) 오전 9시에 4교구가 시작한다. 4교구는 3월 6일 오전 9시까지이다.

3. 교회학교 겨울 계절학교

청년1부, 사랑부, 영어교육부

- 청년1부
2월 28일 ~ 3월 2일, 충헌기도원
정광욱 목사
- 사랑부
3월 1일, 교육관 107호
임성환 목사
- 영어교육부
3월 1일, 봉사관 지하 1층
로봉린 목사



겨울 계절학교 각급 학교의 학년별 방학을 맞으며 학령 전 어린이와 국민학교 학생 및 중학생부의 겨울 계절학교가 일제히 막을 올렸다. 충헌기도원과 교회의 각 부속건물에서 실시된 이번 계절학교는 겨울방학보다는 학년별 방학에 실시함으로 새학년과 연결시키기가 좋다는 판단하에 이번 시기에 실시하게 된 것이다. 계절학교는 교회학교에서 가장 큰 행사로 이를 통해 각 부서가 장비와 도약의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하며 시행해 오고 있는 것이다. 사진은 '영미·유아·유치부의 학부도 특별교육 시간'.



총헌강단

● 요한계시록 강해 25 ●

보충계시(2)

(계 11:1-13)

본 문은 흔히 보충계시라고 하는데 보충계시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내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을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칠년 대환난인데 칠년 대환난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이 아닌 보충해주는 것을 보충계시라고 부릅니다.

1. 성전척량의 부탁

(1)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척량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나라처럼 대나무가 없기 때문에 갈대로 자를 만들어 길이를 재는데 갈대가 얼마나 큰가 하면 지팡이처럼 굵직합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특별한 요청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척량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바로 예배하는지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지 척량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척량해서 모자라면 안됩니다. 하나님의 잣대에 치수가 딱 맞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건생활,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잣대에 딱 들어맞아야 함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 성전 밖 마당은 척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2절을 보면 성전과 성전 안은 척량하라고 하시고 성전 밖 마당은 척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흔 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보호하시기 때문에 척량하지만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마당은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장소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 밖 마당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짓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발에 밟히도록 심판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칠년 환난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전 삼년 반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심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후 삼년 반 동안, 즉 마흔 두 달 동안에는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던져져 짓밟힐 것을 본문은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절에 나타난 대로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다는 교훈입니다. 또한 교회에

대한 제한적인 핏박과 박해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 두 증인

(1) 증거의 내용

4-13절까지를 보면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짧은 베옷을 입고 일천 이백 육십 일을 예언하리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두 증인이 짧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짧은 베옷이라는 것은 슬픔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또 이 두 증인의 증거의 내용은 적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라 멸망의 자식이요 흉악한 범죄자인 것을 증거하고, 이제 장차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 두 증인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2) 두 증인의 정체

4절을 보면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쏫대니"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쏫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두 증인은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뜻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본문 5절에 이 두 증인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보니까 엘리야와 모세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예녹과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스룹바벨과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증인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7절을 보면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싸우는 경우를 전쟁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전쟁은 양쪽편에 싸우는 무리가 많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쟁이라고 한 것을 보아 두 증인은 단순한 두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또 9절을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묵도하며"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라는 것은 전 세계의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두 증인의 시체를 본다고 했는데 만약에 시체가 단 두 구뿐이라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두 감람나무와 두 쏫대는 바로 두 교회, 즉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 다시 말씀 드려서 교회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면으로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입에서 불이 나오는 말씀의 권능을 받았고, 그들이 기도하게 되면 응답받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쏫대는 일곱 교회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두 감람나무와 두 쏫대는 바로 두 교회, 즉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 다시 말씀 드려서 교회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면으로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습니다. 입에서 불이 나오는 말씀의 권능을 받았고, 그들이 기도하게 되면 응답받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면 비가 오지 않는 권세가 있고 심지어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모세가 가졌던 그런 큰 권능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주셨습니다.

(3) 두 증인의 순교장소와 그 결과

8절에 보니까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돔은 바로 음란의 중심지였습니다. 소돔에는 별의별 음란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음란 중에서도 가장 음란한 것이 동성연애, 혹은 수간을 뜻하는 말인 소도마이(sodomy)라는 말은 다름 아닌 소돔이라는 말에 자음 y를 붙인 말입니다. 그 정도로 소돔은 음란하고 더러운 곳입니다.

또 애굽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애굽의 룩스에 가보면 킹스밸리라는 왕들의 묘지가 있는데 어떤 것은 20년 어떤 것은 30년에 걸쳐서 수만명이 동원되어서 만든 묘지들입니다. 그 묘지에 가보면 별의별 귀신들이 다 있습니다. 그야말로 애굽은 우상숭배의 중심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음란한 곳에 가면 죽습니다. 교회는 우상숭배가 들어오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런 음란과 우상을 경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두 증인이 죽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고 했습니다. 이 두 증인이 죽게 되었을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들의 죽음을 즐거워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날 너무나 기쁘니까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부모 자식간에, 친구들간에 또 사랑하는 사람들간에 선물을 교환하는데 이 세상사람들은 교회가 죽는 날, 바로 그 날 선물을 교환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4) 증거자들의 부활 승천

마지막으로 11-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증거자들의 부활 승천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그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텐데 그때에 이들이 살아나서 승천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13절에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십분의 일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칠천이라"고 했습니다. 칠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이고 천이라는 숫자는 10*10*10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칠천 명이라는 것은 단순한 문자적인 의미의 숫자가 아니라 아주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주 최근에 일본 고베에서 일어난 큰 지진으로 5, 100명이 죽거나 실종되었고 수만 명의 부상자와 30만명의 이재민이 생겼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진이 일어난 것을 통계 내보니까 20세기에 가장 많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20세기 후반부에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점점 급속하게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구의 종말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본문 마지막 13절에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있는 사람들처럼 매 맞고 지진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핏박 속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보다는 축복을 받으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정말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교회가 되고, 살아 있는 교회의 증거인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학부에서 겨울방학 동안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최지연

(대학부, 제2-2교구)

<성령비전 2000>—대학부 그 변화의 시작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성령의 대학부가 됩시다.

이런 포스터가 작년 말부터 교회 군데 군데 게시판에 붙어 있었다. 대학부 안에서 양육받는 한 지체로서 진정한 성령의 사람에 대해 생각하며 <성령비전 2000>이라는 운동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대학부를 인도하실까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1, 2월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기 전 구체적으로 <성령비전 2000>이라는 운동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령비전 2000>은 성령의 사람, 성령의 대학부라는 슬로건 아래 하나님 나라, 예수 복음, 성령공동체, 최선의 삶, 100개팀 2000 사역자를 목표로 삼고 작년 12월부터 사도행전을 통독하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53개팀이 운영되어 성령공동체, 예배공동체, 전도공동체, 나눔공동체, 사역공동체라는 팀 목표 아래 국내전도 사역단, 사회개혁단, 통일준비사역단, 장애인선교 사역단, 기도협력사역단으로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출범 이후 먼저 기도로 간구하며 준비하는 마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린 기도회로 설연휴에도 계속해서 적게는 두세명부터 많게는 60여명까지 기도의 열정을 품고 자원하며 모여 기도회 힘써 왔습니다.

세계 복음화와 선교, 한국교회 갱신과 민족 복음화와 통일,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중보하며 대학부의 사역과 양육 그리고 21세기에 쓰임받을 신세대 젊은이들의 복음의 열정과 경건체질을 위해 기도하고, 문화로 또는 삶으로 드러나는 이 땅의 패역한 모습을 회개하며 기도의 용사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대학부의 변화를 지켜 보았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기도로 거듭나는 대학부로 1월 한달을 삼아 한 달간 매주 금요일마다 최고 150명 가까이 총현기도원에서 철야기도회로 들어갔습니다. 1월 첫주는 금식수련회로 하나님께 드리며 목사님과 자원하는 몇몇의 지체들이 3일간 금식하며 기도회 힘썼습니다. 집에서는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초대교회의 열정과 성령님의 역사를 느끼고 교회에 와서 매일 한 시간 이상을 기도하며 하루를 결단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우리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보이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부 집회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치유를 받고 많은 형제 자매들이 회심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 안에 열정이 공유되고 수많은 지역으로 사역을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우리 또래의 젊음이 방황하는 강남역으로 노방전도를 나가기도 하였고 복음이 아직 전파되지 못한 남쪽 섬으로 낙도전도를 다녀왔고, 전라남도

남원으로, 또 춘천소년원으로, 교사로 수고하며 다녀온 지체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2월 6일~9일 총현기도원에서 “보라 지금은 성령받을 만한 때요 이제는 부흥의 날이로다”라는 주제로 구속사적인 성경이해와 성령의 역사라는 목표로 가진 겨울 수련회는 예년과 다르게 더 큰 은혜와 뚜렷한 비전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수련회 기간 동안 대학부의 최고 선배들인 간사들과 자원하는 지체들의 중보기도함이 운영되어 계속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 다. 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최선의 찬양으로 우리 안에 운행하신 성령님을 느끼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가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체들은 감사하였고 마지막 저녁에 각 팀의 비전을 나누고 함께 중보하는

시간인 비전 나이트란 프로그램이 새벽 5시까지 나누어졌습니다. “예수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롬 8:1~2)는 말씀이 와닿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타락한 우리들에게 아들을 보내셔서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을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으로 21세기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섬김을 위한 수고가 기쁨과 감격으로 느껴지며 대학부 공동체와 민족, 세계를 향한 헌신을 결심하는 수련회였습니다.

수련회 이후 2월 한달이 지나가며 또 다른 달을 준비하는 대학부 지체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대하며 새로운 봄을 준비하려 합니다. 3

월은 캠퍼스 복음전파와 사역의 현장에서 전도의 열심을 내는 <성령비전 2000> 1차 깃발대회로 맞고자 합니다. 각 지체의 마음에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각각의 삶의 현장 속에 복음의 진리를 몰라 해매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 대학부 안에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골 1:28~29)

처음 정연희 전도사님이 영아부에서 봉사하라고 하셨을 때 저는 그저 아이들의 간식이나 챙기고 청소나 하겠다는 조건으로 ‘네’하고 대답했습니다. 누구를 가르친다는 것은 그때의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 한 선생님이 출산을 하셨다고 저보고 대신 그 반 아이들 스무명을 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은 낯설어하고 저는 정신이 없고, 찬송할 때에 손동작을 따라하지 못해서 그해 우리반 아이들은 모두 어른들처럼 맹송하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끝나고 나면 온 몸이 땀에 젖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신기한 것이 아이들이 점점 저를 좋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예배 드리고 가면서 뽀뽀 한번 해주는 것이 왜 그렇게 좋았던지,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자랑을 해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면 사람이 더 겸손해져야 할텐데 각성이네” 남편도 웃으며 놀렸습니다. 네, 저는 참 미련하고 교만합니다. 그리고 고도 게을러서 성경공부도 잘 안하고, 목사님이나 장로님 같은 어른이 저만큼 되면 괜히 주눅부터 들고 그렇습니다. 해마다 우리반 아이들과 헤어질 때가 되면 제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참으로 기도 한번 제대로 드린 적이 없구나,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런 저한테 가장 좋은 선생님은 바로 우리반 서너살짜리 어린 친구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이 가

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참 좋은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반 아이들은 아무런 의심없이 그렇게 믿고 말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아주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저는 그때마다 온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어머니들이 주

말리면 무섭게 소리소리 질러대다가 어느 날인가는 저를 넘어뜨리고 제 얼굴을 밟고 나갔습니다. ‘혹시 정서적으로 잘못된 애가 아닐까’ 저는 선택 교사님을 붙잡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 선택님이 하시는 말씀, “…… 네?”

“개 아빠가 내 제자라구, 벌써 이십년이 넘었네, 그런 집 아이는 절대로 잘못된 리가 없단니까?”

저는 그 선택님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럼 이분이 대체 몇살이야, 이렇게 고운 아줌마가?’

그 순간, 저에게도 인생의 목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가르친 아이가 자라나서 교회에서 결혼식

을 올리고, 그의 아이가 다시 주일학교에 다니는 것을 보게될 때까지 내내 총현교회 주일학교 교사 자리를 꼭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때쯤 되면, 이 어리석기만한 사람도 그들처럼 밝은 등대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년 전의 제 첫 제자는 선택님 말씀대로 훌륭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는 유아부 교사가 되었습니다. 요즘도 유아부엔 가끔씩 울음이 많은 아이, 주위가 산만한 아이가 눈에 띄입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미안해서 “나중에 좀 더 크면 데리고 올게요” 하십니다.

저는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아니예요, 애들은 금세금세 자라는걸요? 어른이라고 마음대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기회를 뺏지 맙시다……”

유아부는 교육관 212호실입니다.

◆ 교사통신 / 유아부 ◆

선생님이 되고 나서

“유아부는 교육관 212호실입니다”

이선희

(집사, 유아부 교사)

일날 바쁘다고 어린아이를 어른들 사이에 억지로 앉히고 그들은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예배에만 드리고 가는 것이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글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일주일 내내 아이와 함께 나눌 말씀이 있고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생길 거예요. 혹시, 가족 어른 중에 교회에 잘 안나오려는 분이 계시면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해보세요. 우리 아이를 통해서 우리집의 굳건한 믿음 기둥이 세워질 것입니다. 오년 동안 봉사하면서 그런 가정을 여럿 보았습니다.

오년 전 처음 교사가 되었을 때, 우리반에 저하고는 눈도 안맞추려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두 달이 지나도록 저 혼자 크레파스로 낙서만 하고, 옆의 아이와도 잘 다루어서 제가 좀

토·막·소·식

- ◆ 중등1부는 오늘 찬송가경연대회(지정곡 88장, 자유선택 1곡)를 개최한다.
- ◆ 고등부는 오늘 3학년 전체특강으로 모여 장소를 분반공부 후 메추라기 홀.
- ◆ 대학부는 3월 1일 관악산으로 등산 대회를 떠난다.
- 3월 26일에는 전도대회를 갖기로 하고 준비에 여념이 없다. 각 팀별로 팀의 역할을 증대시키며 총동원전도의 결실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 또한 2학년을 대상으로 예비조장훈련이 매주 토요일 오후 2~5시까지 메추라기홀과 칼빈홀에서 모인다.
- ◆ 청년1부는 오늘 집회 후 각 조별 '찬양으로 하나되자'의 시간으로 모인다. 각 조별로 특이한 준비와 찬양으로 모두가 한마음과 생각으로 찬양을 부르는 시간을 갖게 된다.
- ◆ 새가족양육부에서는 2월 19일~3월 12일까지 12시 30분에서 14:00까지 배다

니홀에서 양육위원 교육을 한다.
◆ 장년2부는 오늘 12시 30분에 김희수 목사님의 특강으로 모인다.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
◆ 장년3부는 오늘 반별친교회로 모여, 3월 26일에는 찬송가부르기대회를 실시한다. 지정곡은 507장.

1995년도 제1차 에바다부 수화교실 개강

에바다부에서는 금년도 제1차 수화교실을 개강한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에바다부 교사실에 비치된 소정양식에 의거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간 12주(3월 12일 ~ 5월 28일)
- 개설강좌 : 초급·중급·고급
- 강의시간 :
평일반 / 화, 목 저녁 7:30~9:00
주일반 / 오후 3:00~4:30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 김창인 목사 : 2월 28일(화) 금란교회 성령부흥회,
3월 1일(수) 민족복음화협의회 31절 연합예배 축도
· 신성중 목사 : 3월 1일(수) 31절 민족화합 기도회 설교
2. 총현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시작 10분전에 도착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 드림으로써 은혜충만하게 하시며, 제2차 세례식과 성찬식을 축복하소서.
3. 하나님 뜻대로 맡겨진 직분에 겸손히 충성하면서 각 구역과 부서별 공동체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청지기훈련을 통해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은혜를 받게 하소서.
4. 하나님이 축복하사 공의와 사랑이 조화된 선진국으로서 선교하는 통일한국이 되게 하시고,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에게 믿음과 지혜의 충만함을 주시며 전국적인 가문을 해갈시켜 주시고 금년에도 풍년을 허락하소서.
5. 제2교육관 공사와 길림성기독교신학원의 설립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며, 환자들의 영육을 소성케 하시고, 입시생들을 축복하소서.
6.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의 건강을 축복하시고, 겨울 계절학교 모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소서.

6 천만 한민족의 가슴속에 무한한 가능성과 긍지를 불러 일으켜 주고 50억 세계인에게 아시아의 조그만 국가인 '코리아'의 힘찬 모습을 보여주며 잠실뿔을 보름간(1988. 9.17 ~ 10.2) 뜨겁게 달구었던 제24회 서울올림픽을 개최한지도 어언 7년이 지났다.

소련, 중국, 동구권의 공산 국가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세계 스포츠 열강들을 물리치고 사상 초유의 4위라는 좋은 성적을 남기며 '코리아' 열풍을 온 세계인의 가슴 속에 남겼던 생각만해도 가슴이 뻘뻘하고 설레었던 그때였다.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탄생

서울 올림픽에 물려올 수많은 지구촌의 세계인들을 우리는 전도대상자로 삼고 한국 교회의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 1988년 8월 28일 총현교회 영어예배부가 탄생되었다. 윤영탁 목사, 정하우 장로, 김천재 장로, 이병학 장로를 중심으로 시작된 영어예배부와 영어 성경학교가 이제는 봉사관 지하1층 가나홀에서 200여명이 모이고 있고 영어교육부도 150여명이 모이는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중 외국인이 30명, Korean-American이 50여명을 헤아리고 있다.

또한 이곳에 참석하는 내국인도 해외에서 살았거나 공부한 사람, 유학가려고 준비하는 사람, 업무에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 우리 부서는 지금... ◆

갑절의 성장을 허락해주신 영어예배·영어성경학교

"7년간 100여개국의 외국인이 예배에 참석"

다. 연령층으로서는 20~30세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0세 이상 50세이며 20세 이하가 그 다음을 이루고 있다. 영어 설교를 75% 알아듣는 사람이 68%이고, 50% 이상 알아듣는 사람이 84%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7년간을 돌이켜 볼 때 세계 100여국의 나라에서 관광, 사업, 스포츠, 학업 등으로 한국을 찾아오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영어예배부와 3부 예배의 외국어 통역을 통해 은혜받고 각기 고국에 돌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그동안에 우리는 AMC(아시아 선교대회), KIMCHI SEMINAR 등 교회 행사에 많은 봉사를 하였고, 강남지역 호텔 및 이태원 등 외국인이 많이 운집해 있는 곳을 전도대상으로 삼고 문서나 노방전도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또한 미 8군 성가대와 우리 시온 성가대가 교류를 가졌고, ACTS(아시아연합신학대학) 학생들을 교회에 초빙하여 믿음과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요즘에는 한국에 근로 연수생으로 와 있는 외국인들중 파키스탄, 필리핀, 인도, 방글라데시인을 중심으로 전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총현교회 3부 예배 및 영어예배부에 참석했던 많은 지구촌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신을 통해 기도를 부탁해 오고 있다. 헝가리, 유고, 폴란드 등 동구라파에서부터 러시아 연방 공화국에서 케냐, 자이레, 수단, 콩고 등 아프리카와 그리고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등 남미와 중국, 인도, 파키스탄, 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홍콩,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와 호주, 뉴질랜드와 구라파와 중동지역에서 답지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

매주일 오전 9시 봉사관 지하 1층 가나홀에서 9시부터 10시까지 예배

우리 영어예배부와 영어교육부는 영어로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국적을 초월하여 어떠한 사람이라도 환영한다. 매 주일 오전 9시 봉사관 지하 1층 가나홀에서 9시부터 10시까지 예배를 드리고 30분간 성도간의 교제로 다과회를 갖고,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영어성경학교를 각 반별로 실시하고 있다. 정교사는 외국인이고 부교사로 한국인 교사가 함께 수고하고 있다.

반 별로는 유치반에서 초등4년까지는 봉사관 104호, 초등5~6학년은 봉사관 106호, 중·고등반은 봉사관 지하 3층 요나홀, 청년반은 봉사관 지하1층 가나홀, 성인반은 봉사관 지하 3층 영어예배 회의실이며 성경공부를 원하는 성도는 누구나 환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 해 말 교구 개편시 국제교구가 생겨 총현교회에 등록하였거나 등록하기를 원하는 외국인과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들은 누구나 국제교구에 환영하며 세계를 교구로 삼고 세계 복음화에 앞장설 분들을 기다리고 있다.

3월 1일 겨울 계절학교

한편 영어교육부는 오는 3월 1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봉사관에서 영어성경계절학교를 열어 은혜받고자 한다.

이번에는 각 반별로 20개국 나라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Continental Study Groups Presentation이 있고, 각 나라 음식을 시식해보는 World Lunch Special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순서가 기다리고 있으니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

이 부 성 (집사, 영어교육부 부감)

교회직원 모집

총현교회 사무국에서는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헌신할 신규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다 음 -

1. 직종
가. 경비직(남): 2명
심신이 건강한 자
나. 사무직(남): 1명
2. 제출서류
가. 세례증명서 1통
나. 주민등록등본 1통
다. 이력서 1통(사진첨부)
3. 기한
1995년 3월 5일 한
4. 제출처
사무국 총무과 552-8200(402)
김차철 집사

총현교회 사무국



▲ 영어예배 및 영어교육부 교사들